



# 광남일보



농협 광주본부-광주여대, 농촌봉사 협약 6 | 함평, 저출산 문제 해결 성공적 모델 제시 8 | 고흥우주항공축제, 5월 3-6일 개최 9 | 배드민턴 안세영, 오를레앙 마스터스 제패 12

주간 제7799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음력 2월 12일)

## KIA 홈경기 매출 '쑥쑥'...광주가 '들쑥'

시, 지난해 9·10월 프로야구 경기일 비교 분석  
임동 증가율 1위...지역경제 긍정적 파급 효과  
속박은 치평동·우산동...유동량은 운암2동 등

KIA 타이거즈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광주 북구 임동 등 기아챔피언스필드 일대 지역의 소비 매출액과 유동 인구,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이거즈가 지난해 37년만에 연고지 광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경기장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온 야구팬들의 경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객기사 15면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야구 관람객들이 '야구성지 광주'에서 보다 다양한 스포츠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해 KTX 승차권·속박비 할인 등 다양한 특화관광 상품을 선보인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 9월과 10월 중 광주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10일 간)과 없는 날(10일 간)의 지역 96개 행정동과 주요 교통거점 등에서 카드소비 매출, 유동인구, 교통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아챔피언스필드가 자리한 '임동'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임동지역의 카드소비 매출액은 경기가 치러진 10일 동안 총 23억1000만원으로 집계돼 경기가 없는 날(17억원)보다 35.9%인 6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유동인구 역시 경기가 있는 날이 총 32만1000명으로, 없는 날 21만2000명보다

51.4%(10만9000명) 급증했다. 임동은 이 기간 광주 96개 행정동 가운데 카드소비 매출액과 유동인구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교통량은 KTX 광주승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챔피언스필드 주변 정류장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KTX 광주 승정역 하차객수는 경기가 열리는 날은 12만582명이 하차한데 비해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은 10만8500명으로, 경기가 열리는 날 이용객이 11.1%(1만2082명) 늘었다.

종합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하차객수 역시 경기가 열리는 날 9만4224명이 하차해 경기가 없는 날 하차객수(8만6496명)보다 8.9%(7728명)가 늘어났다.

챔피언스필드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 14곳을 이용한 탑승객 수도 경기가 열리는 날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기가 열리는 날은 4만5294명이 이용해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2만4431명)보다 무려 85%(2만863명) 급증했다.

속박 부문 카드소비 매출액은 경기가 열리는 날 타지역 방문객들은 치평동(2억7200만원) 일대를 가장 많이 찾았다. 이어 광산구 우산동(4900만원), 충장동(4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호남고속도로 입구인 운암2동(30%)과 신안동(20%), 광천동(17%)에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특히 타지에서 온 야구팬들이 낳는 경제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는 배달 매출액과 고속버스 이용률 등이다.

▶2면에 계속  
참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10일 현재 광주 한 의과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비어 있다.

## 내년 의대 증원 철회에도 광주 의대생들 '싸늘'

올해 신입생 수업 거부...지역 복학생 20~30명뿐  
전남대·조선대 "정부 지침 기다리며 대응책 논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상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3월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교육부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도 발표했다. 2024, 2025학년의 동시 졸업 방안, 2024학번이 2025학번보다 6개월 먼저 졸업하는 방안, 여건에 따른 분리 교육 방안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학생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신입생 상당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다. 신입생

전원이 입학에 마쳤지만, 선배들의 집단 휴학 기류에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다만, 전남대는 10일, 조선대는 11일까지 수강신청 정정 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업 참여 현황은 그 이후에 집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4학번을 포함한 휴학생들의 움직임도 미비하다.

전남대, 조선대 의대 모두 복학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각각 20여명, 10여명만 복학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개편 새출발

 박준호	 조상열	 이건철	 박수기	 임양진
 문준민	 박봉순	 김준수	 최재훈	 신언범
 조송유	 김윤자	 김문순	 최충명	 이지안
 전광진		 박진영		

광남일보 은·오프라인 뉴스콘텐츠 평가 자문기구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박준호)가 새롭게 출범한다.

광남일보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독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독자권익위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독자권익위에는 총 17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기존 위원 9명을 포함한 정치·경제·문화·체육계 등 각계 각층 8명의 신규 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은·오프라인을 망라한 뉴스이용자 관점에서 지역은 물론, 모든 형태의 광남일보 콘텐츠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NS 등 플랫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독자권익위는 11일 오전 11시 광남일보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독자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5년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준호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지면에서부터 각종 콘텐츠 평가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광남일보가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

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1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준호 광주전남언론포럼 이사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문준민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 △최재훈 세무사 △김준수 전 광주교통공사 기획조정처장 △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조송유 전 광산구의회 의장 △신언범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장 △김윤자 농협 광주본부 경영기획단장 △최충명 광주무등심리상담센터 원장 △이지안 잇다커뮤니케이션 대표 △전광진 광주시 철인3총회회장 △김문순 광주재능시상협회장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